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s of the Contemporary Museum by Regeneration of Abandoned Architecture

김명옥* / Kim, Myoung-Oak

Abstract

Nowadays, numerous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are undergoing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eonomics' as a key strategy, which finds out cultural resources in a cultural backwater and revitalizes the city and its economy by making full use of those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trateg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museum by regeneration of abandoned architecture through such case studies as Tate Modern in London, PS1 Contemporary Art Center in New York City, Hamburger Bahnhof-Museum for Contemporary Art in Berlin and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in Beijing. This study eventually suggest the basic guideline for the contemporary museum by regeneration of abandoned architecture, aiming to establish Seoul as an environmentally cultural city. The case studies show all of the four museums preserve almost all of their appearances, basic structures and spaces, but, their material expressions, exhibition methods and their programs vary depending on their goals and strategies differentiating the way they preserve the old architectural elements and the way they add the new ones form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키워드 : 폐건물, 재생, 현대미술관

Keywords : Abandoned architecture, Regeneration, Contemporary museu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이동인구가 늘어나고 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도심에서 문화가 있는 지역의 개발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문화가 도시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은 뉴욕과 파리 등 기존의 문화도시들과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영국의 게이츠헤드 등 신흥 문화도시들이 입증함에 따라 세계의 도시들은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문화를 통하여 도시를 재생시키고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과거 도시 발전 과정에 형성되었으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쓸모가 없어진 폐건물, 낡은 공장과 창고 등을 재생하고 재활용하여 도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문화와 예술을 위

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부각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도가 없어진 폐건물을 재활용하여 현대미술관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었으며, 폐건물의 재활용은 경제적 이득과 재생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그 도시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기억과 삶의 흔적이 남아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폐건물을 재생하여 현대미술관으로 개조하는 작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문화도시 지향의 세계적인 추세는 국내의 대도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내에서도 광범위한 문화관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지만, 현대미술관과 관련하여 그 다양함의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해외의 선진 도시들이 폐건물을 재생하여 현대미술관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에도 폐건물을 활용한 현대미술관이 조성될 수 있는 시점이라 하겠다. 서울 시립미술관이 부분적으로 이전된 파사드(facade)를 재활용하였다고는 하나, 표면적인 활용에 국한되어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

* 정희원,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실내디자인전공 부교수

** 본 논문은 덕성여자대학교 2008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관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다. 2008년 서울특별시의 문화 창고 도시로의 선포와 함께 2009년 초 확정 발표된 소격동 구 기무사령부 부지의 현대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안은 그 지역에 형성된 문화 인프라와 도심 내 현대미술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조성될 현대미술관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문화 환경 조성방법에 있어 미술관 건립의 방향 중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관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폐건물의 재생과 재활용을 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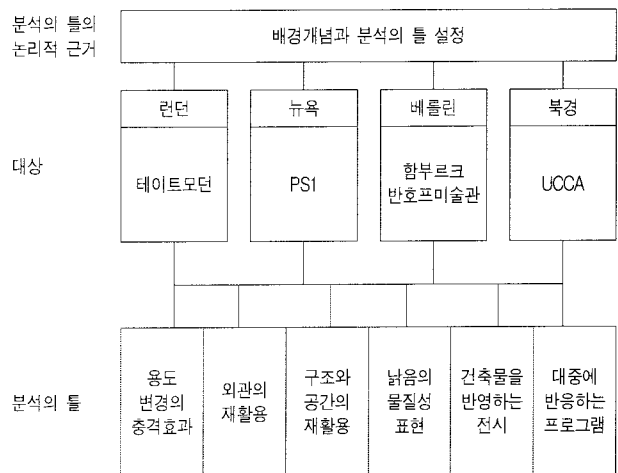
본 연구의 범위는 선진국의 수도에 소재하며, 폐건물의 재생에 의하여 성공적인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Tate Modern), 미국 뉴욕의 피에스원(P.S.1 Contemporary Art Center, 이하 피에스원이라 지칭함), 독일 베를린의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 for Contemporary Art), 중국 북경 다산쯔지역의 유씨씨에이(UCCA,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s, 이하 유씨씨에이라 지칭함)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네 지역의 미술관들은 폐건물을 미술관으로 재생함과 동시에 이를 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고 인정받는 현대미술관들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연구의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건물의 재생의 방법을 가정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재생의 방법을 증명 확인하는 귀납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폐건물의 재생과 재활용을 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의 충격 효과, 외관의 재활용, 구조와 공간의 재활용, 낡음의 물질성 표현,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재생 방법의 분석의 틀을 가지고 네 지역의 미술관들을 연구하여 그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할 네 지역의 현대미술관 이외에도 파리의 오르세이 미술관 등 건축물을 재생하여 재활용한 미술관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대미술관의 연구에 국한하고자 한다. 폐건물을 재생하여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는 충격적인 발상 전환의 사고는 현대미술의 사고를 반영하며, 현대미술관이 전시의 목적 뿐 아니라 현대미술의 사고방식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현대미술관의 확장된 표현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기 위한 배경내용과 분석의 틀인 용도변경의 충격 효과, 외관의 재활용, 구조와 공간의 재활용, 낡음의 물질성 표현,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가설을 2장에서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폐건물을 재생하여 현대미술관으로 성공적으로 탈바

꿈하였다고 인정되는 네 지역의 현대미술관의 재생방법을 분석 비교하여, 4장의 결론에서 현대미술관 조성 방향에 있어 폐건물의 재생과 재활용을 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확인 증명하고자 한다.

<표 1> 사례연구 대상과 분석의 틀



2. 배경내용과 분석의 틀

2.1. 배경내용

한 때 추하고 쓸모없던 폐건물도 현대미술관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사고는 발상 전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미술의 사고방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20세기 후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¹⁾ 정책의 결과의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산업화 시대의 개발의 대상이었던 도시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재생 또는 보존의 대상이 되었고,²⁾ 과도하게 개발되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휴시설로 남겨진 폐건물들을 재생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재생의 의미 중에는 ‘낡거나 못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³⁾이라는 내용이 있듯이, 재생에는 기존 물질의 보존 문제가 대두된다. 폐건물을 재생하여 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어떠한 특정 요소가 보존되고, 어떠한 요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되어 미술관의 특성을 부여하고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는지, 이들이 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생의 과정을, 폐건물의 재활용 과정을 용도가 없어진 폐건물 확보, 건물과 내부공

1) '도시 재생'은 과거 도시 발전 과정에 투입되었던 각종 자원이 도시 쇠퇴로 인하여 유휴시설로 남겨진 점에 초점을 맞춰 이를 재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박준형, 역사 문화가 살아나면 도시는 화려하게 부활한다, Noble Asset 2008년 6월호, 저스트알, 2008, pp.78-79에서 참조.

2) 이정형, 도시재생과 경관만들기, 도서출판 발인, 서울, 2007, p.4

3) 다음국어사전(<http://krdic.daum.net/dickr>)

간을 형성하는 기본 구조를 제외한 모든 시설 철거, 용도변경을 위한 방향 설정, 용도변경을 위한 필요 요소 첨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로 요약하여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검토한 결과, 폐건물을 활용한 현대미술관으로의 재생의 효과적인 방법론, 즉, 용도변경의 충격 효과, 외관의 재활용, 구조와 공간의 재활용, 낡음의 물질성 표현,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2.2. 분석의 틀

(1) 용도변경의 충격 효과

폐건물을 재생하여 미술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 전환적인 사고는 현대미술관이 미술전시 뿐 아니라 현대미술의 사고의 방법까지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용도변경의 충격 효과를 통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확보한 현대미술관들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2) 외관의 재활용

현대인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권위적이지 않은 공간이 현대미술의 성향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사고가 가능하며,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건축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건물의 외관을 재활용하는 정도와 방법에 따라 재생된 건축물의 상징성과 독특한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겠다.

(3) 구조와 공간의 재활용

일반인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와 공간을 재활용함으로써 과거 건물의 용도를 알리고, 기억의 중첩을 통하여 현대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네 지역의 현대미술관들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4) 낡음의 물질성 표현

낡음은 세월의 흔적으로서 건축물과 인간사의 흔적이기도 하다. 낡고 추한 것도 관점에 따라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다는 현대미술의 사고의 한 방법도 현대미술관 건축에 활용될 수 있으며, 낡은 건물의 물질성 표현 정도와 방법에 따라 재생된 미술관들은 느낌을 달리하며, 미술관의 특성을 암시할 수 있겠다.

(5)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건축물의 과거의 용도, 과거의 모습과 구조와 공간에 따라, 그리고 건축물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라 건축물의 독특함이 형성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전시를 함으로써 미술관의 전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이하하여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겠다.

(6)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

현대미술에서 일상성과 인터랙티브(interactive)의 문제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속성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미술과 일상성과의 관계는 다다이스트, 팝 아티스트를 비롯한 예술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현대미술관 설계에서 일상성의 문제는 대중과의 관계로 확장 적용되었다. 현대미술관은 대

중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수용하고 대중과의 교류를 확대하게 되었고, 미술관의 프로그램도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 따라 반응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에 반응하는(interactive) 현대 미술관이라는 측면에서 네 지역의 현대미술관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3. 폐건물을 재생한 현대미술관의 재생방법

3.1. 건축물의 하드웨어적 활용

(1) 용도변경의 충격 효과

1) 테이트모던

영국 테임즈강 남쪽에 위치한 테이트모던 건물은 원래 가일 길버트 스코트(Giles Gilbert Scott)가 설계하여 1947년 가동을 시작한 화력발전소 건물로서, 한때 전기를 생산하며 런던시의 전기를 공급하던 곳이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하여 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자 폐허가 되었던 건물이었다.⁴⁾ 증가하는 현대미술품과 방문객으로 추가 공간을 찾던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은, 1500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은 기존대로 테이트 브리튼에서 전시를 하고, 20세기 이후의 작품만을 별도로 전시할 분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다. 폐허가 된 화력발전소 건물을 재활용하여 용도변경 한다면 충격 효과를 높이며 독특한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헤르조그 드 메론(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발전소 건물을 재생하여 테이트모던을 개장하게 되었다.⁵⁾ 2000년 개장이래 삼천만명이 방문하는 등 주변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주변 창고였던 건물들은 디자인 박물관과 와인박물관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왕립정신병원이었던 건물은 전쟁박물관으로 조성되는 등 런던시의 도시재생 정책은 테이트모던을 계기로 활성화되어 그 지역은 문화 클러스터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⁶⁾

2) 피에스원

피에스원 건물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 공립 초등학교의 용도로 지어졌던 19세기 건물로서,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으로 낙후되면서 폐교로 방치되었던 건물이었다. 피에스원은 폐교가 된 건물을 젊은 실험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작가들의 작업 스튜디오와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과감한 제안을 뉴욕 시청에 하게 되었고, 뉴욕시는 슬럼화 되어가는 지역을 개선하려는 문화정책과 맞물려 이를 승인하게 되어, 초등학교 건물은 실험적인 미술관 성격의 대안공간⁷⁾(alternative space)으

4)나도삼·백승만,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06, p.44

5)Jane Burton, Tate Modern, Tate Publishing & Tate Enterprises Ltd., London, 2007, pp.4-6

6)나도삼·백승만, 앞의 글, p.44

7)대안공간이란 공장이나 공공기관의 폐건물들을 젊은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전시나 작가의 스튜디오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전통적

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과거 공립 초등학교의 모습과 명칭 (Public School 1)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뉴욕에서 가장 전위적인 전시와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알려짐에 따라,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부속미술관으로 흡수되었다. 하지만 피에스윈의 독특함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과 전시기획, 프로그램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독일 최초의 터미널 기차역으로서 1847년에 세워진 베를린의 함부르크 기차역은 복잡해진 역의 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근처 새로 지어진 역사로 역의 기능을 이전함에 따라, 구역사는 한동안 수송과 건설박물관 (museum of transport and construction)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관람객이 드물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독일 정부는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을 뉴 내셔널 갤러리(New National Gallerie)와 함께 베를린에 위치하는 두 개의 중요한 현대미술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 기차역을 개조하여 현대미술관으로 전환하자는 발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차 역사를 개조하여 성공적인 미술관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파리의 오르세이 미술관의 선례와 아방가르드 작품을 전시하는 현대미술관으로의 용도변경의 충격적 전환은 아방가르드 미술의 이미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셉 폴 클라우스(Josef Paul Kleihues)의 설계에 의하여 1996년 현대미술관으로 개장하게 되었다.

4) 유씨씨에이

북경 다산쓰의 유씨씨에이를 포함하는 798 예술지구의 갤러리 건물들은 원래 독일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공장이었던 건물로, 사회주의 공업혁명을 이끌어가던 공장들이었다. 1990년대 이후 개방되기 시작한 시장경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폐허가 되었던 건물로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은 반면 임대료가 저렴하여 예술가들이 들어와 작업하였던 건물이다.⁸⁾ 그 후 갤러리들이 입주하면서 넓고 장식 없는 공장공간이 실용적인 면에서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적합할 뿐 아니라, 798 지역 공장지대의 구 사회주의 분위기와 현대미술의 대조적인 어울림이 지역의 독특함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여 많은 공장들이 미술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현재 100여개가 넘는 대형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공장의 옛 모습을 유지한 채 현대미술을 전시하고 있으며, 유씨씨에이는 프랑스 건축가 빌모트(Jean-Michel Wilmotte)의 설계에 의하여 2007년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립 비영리 미술재단으로 개장하게 되었다.

(2) 외관의 재활용

인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달리 일상의 허름한 공간에서 실험적인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8)Berenice Angremy, 798 A Place of Artistic Possibilities, Beijing 798, Sichuan Publing Group, Beijing, 2008, pp.12-13에서 발췌함

1) 테이트모던

테이트모던 건물의 외관은 오래된 발전소의 모습 거의 대부분을 유지하여 옛 느낌을 간직하고 있으며, 단지 옥탑 층만을 유리로 증축하여 벽돌 층 위에 수평적인 유리 층의 재료대비로 상호간의 존재를 드러낸다. 벽돌 층은 옛 건물로서 견고함을 표현하며, 추가된 유리 층은 현대적인 가벼움을 표현한다. 테이트모던의 외관에서는 100미터 높이의 수직구조인 굴뚝도 보존하여 두 겹의 수평구조와 굴뚝의 수직구조로 인한 거대한 절제미를 표현한다. 특히 야경에는 유리 층 전체를 밝히는 조명 빛으로 인하여 수평 수직의 대비는 더욱 강조된다.

2) 피에스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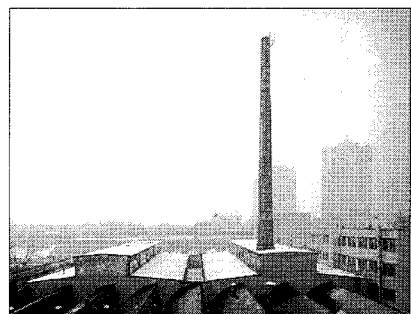
피에스윈 건물의 외관은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19세기 공립 초등학교의 허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피에스윈이 실험적인 대안공간에서 시작하여 그 정신을 유지하면서 외관의 아름다움보다는 작품의 전위성과 실험정신에 중점을 둔다는 미술관 방침을 암시한다. 또한 낡은 외관은 내부 곳곳에서 보여주는 건물과 설치가 일체가 된 사이트 스페시픽(site-specific) 작품들에 연속성을 부여하며, 작품을 담는 표피가 예술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전위적인 미술관으로서 현대미술의 모호성을 암시한다. 입구로부터 건물까지의 마당부분은 콘크리트 담을 둘러 입구성과 장소성을 명확히 하였다.

3)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은 19세기 신고전주의 건물의 외관을 그대로 보존하여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외관에서 강한 절제미를 보여준다. 조명작가 댄 플래빈(Dan Flavin)의 네온조명 작품을 외관에 설치하여 보수적인 느낌을 상쇄하며, 외부 중앙의 오래된 시계는 과거 기차역을 암시한다. 네 개의 독립된 공간이 각각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 중정에서는 다른 구조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다.

4) 유씨씨에이

유씨씨에이 건물의 외관은 이 지역 대부분의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낡은 벽체와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지붕 모습을 유지하여 과거 사회주의 공장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50미터 높이의 수직적 굴뚝의 존재는 다른 건물과 차별화되며, 과거 이 지역이 공장지대였음을 상기시키는 이유로 유씨씨에이의 굴뚝은 798 예술지역과 유씨씨에이를 대표하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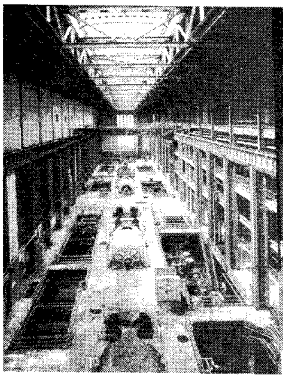
<그림 1> 유씨씨에이 외관

정물이 되었다. 거리에 면한 일층 외부에는 내부 레스토랑을 확장하여 밝은 분위기로 주변 배경과 대조를 이룬다.

(3) 구조와 공간의 재활용

1) 테이트모던

테이트모던에서는 옛 구조 요소인 천장의 철골 트러스, 기둥과 벽체를 남겨둔 채 그 외의 요소를 철거함으로써 과거 발전소의 넓은 공간을 더욱 인지하게 하였다. 테이트모던에서 가장 독특한 공간은 경사로를 포함하는 터빈홀이라 할 수 있는데, 터빈홀은 발전소이었던 당시 거대한 발전기들을 가동하던 곳으로 수직으로 35미터 높이의 천장까지 개방되어 있어 천창으로부터 자연광이 유입되며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미술관 내부는 북측 테임즈강 쪽과 서측의 완만한 경사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며, 넓은 23미터의 폭으로 이루어진 경사로를 따라 진입하다보면 경사로가 자연스럽게 터빈홀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터빈홀은 옛 모습 그대로의 거대한 공간감을 지니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광장과 같은 느낌을 준다.⁹⁾ 터빈홀은 로비의 용도와 대형 설치작품의 전시장으로



<그림 2> 옛 터빈홀의 모습



<그림 3> 터빈홀과 램프

사용되고 있으며, 거대한 설치작품은 공간의 일부로 느껴져 공간이 때로는 도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한편에는 오래된 장비가 그대로 걸려있어 원래 발전소였음을 재 상기시킨다. 터빈홀은 미술관의 모든 공간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심의 공간으로 외부의 테임즈 강변과 일층의 서점, 이층의 카페와 강당, 삼사 오층의 상설 전시장, 육칠층의 부대시설 및 레스토랑으로 연결된다.¹⁰⁾

2) 피에스원

피에스원은 원래 초등학교 건물의 구조와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벽돌로 이루어진 내력벽 구조를 보존하고 있어 아직도 공립 초등학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실들은 일

련의 전시공간으로 사용된다. 교실 공간을 활용하여 그 공간에 맞는 현장설치작업을 하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건축과 설치가 일체가 되는 사이트 스페시픽(site-specific) 전시는 피에스원의 전통이 되었다.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등 많은 유명 작가의 건축과 미술이 하나가 된 설치작품들이 상층부의 구 교실 공간에 장기 설치되고 있으며, 계단 및 건물의 넓은 구석 곳곳에 설치작품들이 건물의 일부로서 전시되고 있다.

3)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은 기차 역사를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점, 구 역사의 철골 트러스 구조를 보존하고, 높은 천장 아래 플랫폼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파리의 오르세이 미술관과 비교할 수 있겠다. 두 건물 모두 지붕 트러스와 기둥 등 건물의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오르세이 미술관이 내부 공간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인상파의 작품에 어울리도록 파스텔 색채와 포스트모던 장식적으로 내부를 형성한 반면,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은 백색 도장 벽체에 진회색 철골 트러스의 흑백 대비로 아방가르드 작품을 전시하는 현대미술관으로서의 강한 공간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의 공간은 입구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과 과거 기차역 플랫폼이었던 역사홀과 새로 증축된 높은 볼트 형식의 클라이우스 홀과 과거 레호터(Lehrter)역이었던 반 지하공간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증축된 클라이우스홀을 제외하고는 모두 옛 구조를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강조된 역사홀 철골 트러스의 거친 아름다움은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방가르드의 거친 현대미술과 조화를 이룬다. 2004년 2차 확장 공사 때 흡수된 과거 레호터 역이었던 전시공간도 천장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반 지하에 위치하며 긴 복도가 특징인 선적인 공간으로서 주 전시공간에서 분리되어 있어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그림 4>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 역사 홀 내부

4) 유씨씨에이

798 예술지구에 위치하는 대부분의 미술관과 갤러리들은 과거 공장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넓은 공간 그대로를 사용

9)Vittorio Lampugnani & Angeli Sachs(양효실·최도빈 옮김), 세계의 미술관, 한길사, 파주, 2006, pp.164-166와 Herzog & De Meuron, Herzog & De Meuron, Birkhauser, Switzerland, 2005, p.97에서 발췌 요약
10)Ken Allinson London's Contemporary Architecture, Architectural Press, 2003, pp.106-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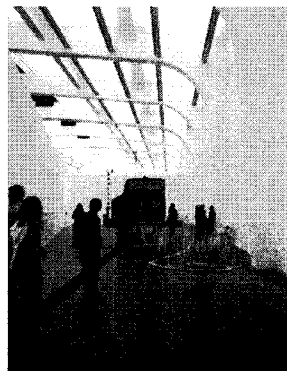
하여 과거 공장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지만, 유씨씨에이는 외부의 옛 모습은 간직하고 있으나 실내는 두 개로 나뉘어진 지붕 구조만 유지한 채 내부를 현대적으로 보수하고 백색 칠을 하여 외부의 허름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유씨씨에이는 두 개로 나뉘어진 옛 지붕 구조를 이용하여 한쪽의 지붕 구조 아래에 발코니를 설치하며 크지 않은 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배치하여 실내는 이 지역 다른 갤러리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아늑한 느낌을 지닌다. 또한 실내에는 천장의 구조 프레임과 함께 입구의 벽돌 벽과 기둥의 일부 하부구조가 낡은 모습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옛 향수를 느끼게 한다.



<그림 7> 피에스원 계단 이용한 그림



<그림 5> UCCA 입구로비



<그림 6> UCCA 전시장

(4) 낡음의 물질성 표현

1) 테이트모던

테이트모던은 건물의 낡음의 물질성을 새로운 재료와의 관계에서 부각시킨다. 옥탑 유리층의 수평적 재료 대비로 낡고 견고한 벽돌의 물질성을 외관에서 부각시킬 뿐 아니라, 실내에서는 첨부된 새로운 요소들에 의하여 벽돌 벽과 철골 구조의 옛 느낌은 더욱 강조된다. 특히 돌출된 상설전시실의 반투명 벽체에 조명이 밝혀지면 낡은 벽돌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의 분위기는 조명으로 인하여 더욱 가라앉아 보이며, 돌출된 반투명 벽체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떠 있는 듯 느껴져 초현실적인 공간감을 가지게 된다.

2) 피에스원

피에스원은 낡음의 물질성을 부각하며 건축물이 전시의 일부가 되는 공간이며, 더 나아가 낡은 건축물이 설치작품과 하나가 되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대수롭지 않은 낡은 건축의 일부분도 관점과 방법에 따라 시간성과 물질성을 표현하며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전환적 사고는 낡은 건축물의 물질성과 실험정신이 결합함으로써 유머러스한 현장 설치작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일상의 폐품을 활용하여 작품으로 재창조하는 발상 전환적 사고는 현대미술의 사조 중 팝아트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법으로서, 피에스원은 팝아트의 사고를 낡은 건물의 물질성을 통하여 예술작품으로 표현한다.

3)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은 건물의 외관과 구조는 예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낡음의 물질성을 보다는 천장의 옛 철골 트러스 구조를 활용하여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더욱이 기차역사의 플랫폼이었던 구역은 원래 실외에 위치하였던 이유로 이를 내부로 전환하기 위하여 벽체를 필요로 하였고, 개조 시 새로운 재료가 추가되었다. 많은 빛과 벽체의 도장작업으로 옛 건물은 새 건물인 듯 표현되었으나, 반 지하의 레호터 역이었던 부분은 낡은 벽체의 물질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4) 유씨씨에이

798 지역 대부분의 갤러리가 내 외부의 낡은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 유씨씨에이는 외관과 굴뚝을 보존하여 낡음의 물질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부는 구조만 남긴 채 현대적으로 보수하였다. 남아있는 입구의 낡은 벽돌 벽과 천장의 콘크리트 보는 두드러져 보여 마치 오브제 같이 느껴지며, 실내에 일부만 노출된 옛 굴뚝은 마치 아방가르드 미술품 같다.

이상의 연구를 도표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건축물의 하드웨어적 활용

미술관	용도변경의 충격효과	외관의 재활용	구조와 공간의 재활용	낡음의 물질성 표현
(영) 테이트모던	20세기 중엽 화학발전소 → 폐허 → 현대미술관	옥탑의 유리 추가층 수평대비로 옛것 강조/ 외관 재활용/ 굴뚝의 상징성	철골트러스, 기둥, 내부 벽, 옛 장비 보존/ 터빈홀의 느낌 보존/ 거대한 공간감	신구 대비로 낡음의 물질성 강조
(미) 피에스원	19세기 공립학교 → 폐허 → 대안공간/ 현대미술관	옛 모습 그대로 재활용/ 외관의 모습이 전위성과 실험정신 반영/ site-specific 전시에 연속성 부여	교실구조유지/ 공립교 모습 보존/ 건축과 설치가 일체된 공간	낡음의 미학/ 낡은 건축요소 이용한 설치/ 팝아트 사고를 건물로 표현
(독)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	19세기 중엽 기차역사 → 수송/건설 박물관 → 현대 미술관	외관 재활용/ 조망작품으로 보수적 느낌 상쇄	철골트러스와 기둥 구조 재활용/ 트러스 이용한 거친 분위기 조성/ 플랫폼 분위기 유지/ 명확한 구조와 공간/ 반지하벽 재활용	강한 역사성 표현/ 반지하 공간의 노출된 낡은 벽
(중) 유씨씨에이	20세기 중엽 사회주의 공장 → 폐허 → 현대미술관	외관 재활용/ 굴뚝의 상징성	두 개의 천장구조 유지/ 구조프레임, 굴뚝하부구조, 입구 벽 보존	입구의 낡은 벽, 천장 보, 굴뚝 일부 내부에 보존/ 옛 요소의 오브제적 처리

3.2. 건축물의 소프트웨어적 활용

(1)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1) 테이트모던

테이트모던의 가장 독특한 전시는 터빈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설치작품의 기획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 건물의 크기를 능가하는 대형 설치작품은 과거 터빈홀의 크기를 상상케 하며, 설치작품의 공간 안에서 그 거대함을 재확인하게 한다. 터빈홀의 수직적 개방으로 인하여 대형 설치작품은 이층의 발코니를 비롯한 미술관의 여러 장소에서 다각도의 관찰이 가능하다.

삼 사 오층 상설전시장에서의 전시 또한 테이트모던의 건축물이 대범하고 충격적이듯, 전통적인 연대기 순 전시에서 탈피하여 주제별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190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작품을 전시한다. 큐비즘과 미래주의(State of Flux: Cubism, Futurism, Vorticism), 미니멀리즘(Idea and Object: Around Minimalism), 1945-1960의 새로운 표현방식의 회화와 조각(Material Gestures: New Painting and Sculpture 1945-1960), 초현실주의(Poetry and Dream: Surrealism and Beyond)로 분류하여 전시하며,¹¹⁾ 네 종류의 유형별 전시는 대형 설치전과 함께 테이트모던의 성격을 규정한다. 유형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기가 마련된 공간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직접 정보를 찾게 하거나 네 개의 유형별 전시장 입구에 연상단어와 작가이름, 연대기, 사조 등을 낚서 형식의 필치를 보여주는 교육적 방법을 통하여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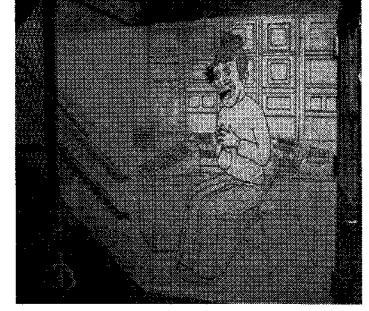
2) 피에스원

피에스원의 전시는 낡은 건물을 이용하거나 낡은 건물 자체가 설치작품의 일부가 되는 사이트 스페시픽 (site-specific) 전시가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낡은 벽돌 벽과 어둡고 좁은 계단 벽에 직접 그려진 낚서 같은 그림, 입구 계단에 버려진 것 같은 장난감과 같은 동물인형 설치작품, 구멍 난 바닥 내부에 설치된 비디오 작품 등 낡은 건물 전체가 작품에 이용되거나 작품의 일부가 되었다. 피에스원의 대표적인 사이트 스페시픽 장기 설치작품으로 피에스원 건축물과 설치를 일체화시킨 제임스 터렐의 작품은, 옛 교실공간에 액자와 같은 프레임을 만들고 천장을 뚫어 외부로 만들고 그곳에 불박이 벤치를 설치하여 관람객이 하늘과 구름과 날아다니는 생명체의 자연을 보며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였으며, 움직이는 자연 자체가 프레임 속의 그림이 되도록 한 작품이다. 낡은 건축물을 활용한 대담한 전시와 대안 프로그램은 실험적인 전위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였으며, 낚서화(graffiti)로 유명한 바스키아, 키스 헬링 등 당시무명의 전위작

가들을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하게 만들었다.¹²⁾



<그림 8> 외부계단의 설치작품



<그림 9> 내부계단 벽 위의 그림

3)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의 중심공간인 역사홀에서는 과거 플랫폼의 강한 트러스에 어울리는 아방가르드한 설치작품을 주로 전시한다. 조셉 보이스(Joseph Beuys), 로버트 라우젠버그(Robert Rauschenberg),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빌 비올라(Bill Viola), 메르츠(Merz), 톰블리(Tombly) 등 196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아방가르드 대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특별 기획 전시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¹³⁾ 또한 건축물의 독립된 구조를 반영하여 볼트형 클라이우스 홀에는 특별전 위주의 작품을, 선적 요소가 강조된 리크홀 복도에는 회화작품을, 리크홀의 개별 실에는 작가별 설치작품을 공간에 맞추어 전시한다.

4) 유씨씨에이

유씨씨에이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으로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798지역은 사회주의 건축적 배경을 보존한 가장 중국적인 장소인 만큼, 중국 작가의 현대작품을 위주로 전시한다. 798 지역 대부분의 전시장이 파티션 없이 큰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유씨씨에이는 원래의 바우하우스형 지붕 구조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을 고려하여 공간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한편의 대 전시실에서 국제적인 중국 작가의 현대작품을 전시하고, 여러 영역으로 분할된 다른 한편의 소전시실에서 신진 작가들의 발굴을 위한 특별전을 전시한다.

(2)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

1) 테이트모던

테이트모던과 밀레니엄 다리를 포함하는 테임즈 강 주변의 문화지구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여 테이트모던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통하여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테이트모던은 많은 방문객에 고무되어, 미술관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확장 계획의 핵심 내용

11) Jane Burton, 앞의 글, p.12

12) 하용석, PS1 Museum 국제 스튜디오 프로그램, 문화예술, 1995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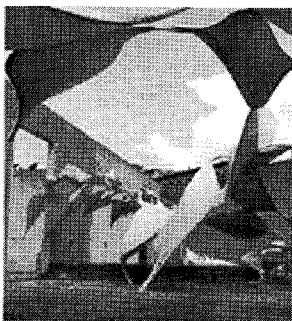
13) Christian Hunziker, Berlin, Publicon, 2004, pp.29-30

은 대중을 위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터빈홀 남쪽 과거 기름 탱크가 위치하던 자리에 기름 탱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다목적공간에 도서실과 자료실, 영상과 영화극장, 어린이 갤러리와 교육 공간, 다양한 미디어의 전시 공간, 시민을 위한 외부 공간 등을 조성하여 대중을 위한 현대미술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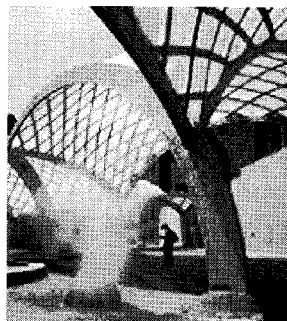
2) 피에스원

피에스원의 전시 유형이 건축물과의 관계로 시작하였듯이 피에스원의 프로그램 또한 건축물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대안공간으로 시작되었다. 대안 공간 프로그램이란 공장이나 공공기관의 폐건물들을 젊은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작가의 스튜디오와 그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피에스원은 최초의 대안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후 실험적인 미술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피에스원은 대안 공간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데, 실험적인 건축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Young Architects Program)은 피에스원의 외부공간에 맞는 현장설치작업¹⁵⁾(site-specific)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건축가의 작품을 외부공간에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놀이와 이벤트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작품 속에서 대중이 놀고 즐기며 체험토록 한다.¹⁶⁾ 실험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통하여 대중이 즐기도록 한 독특한 설치작품 이외에도 여름 음악 페스티벌 (Warm Up Summer Music)과 영상 연극 공연 등 외부공간에서 즐기며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며 실험정신을 강조하는 미술관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림 10> 2005년도 외부 site-specific 설치



<그림 11> 2006년도 외부 site-specific 설치

3)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은 독일이 조셉 보이스 등 플럭서스 작가를 비롯한 아방가르드 작가를 배출한 점에 착안하여, 미술

관 프로그램 또한 대중을 위한 행사와 이벤트 보다는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아방가르드 대가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¹⁷⁾ 이는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이 도심 중심부나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은 아방가르드 작가의 독특한 전시를 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수준 높은 전시를 위하여 국립 뉴 내셔널 갤러리와 협조하며 작품을 상호 대여하며 교류한다.

4) 유씨씨에이

유씨씨에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작가 위주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기간 동안 전시공간에서 뿐 아니라 카페, 서점, 레스토랑 등 미술관 모든 영역에서 작가의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홍보의 역할도 담당 한다. 젊은 큐레이터의 이름을 내걸고 젊은 작가를 위한 특별전도 마련하는 등 크지 않은 사립 미술관으로서 세심한 배려를 하며 중국 현대 작가의 발굴과 전시를 위주로 하는 독특함을 유지함으로써 미술관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유씨씨에이도 다른 현대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람객을 미술관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798 지역이 예술지구로 알려지면서 많은 외국인 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여 130석의 다목적 강당에서는 오디오 비주얼 장치와 통역장치를 설치하여 강연과 회의, 세미나 용도로 사용케 하며, 영화 및 다큐멘터리 필름 상영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미술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이층의 살롱에서는 특별한 회의와 미팅을 위하여 공간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이상의 연구를 도표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건축물의 소프트웨어적 활용

미술관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
(영) 테이트모던	터빈홀의 도전적 설치전시/ 거대함의 재확인/ 네 개의 유형별 전시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과 문화행사 이벤트
(미) 피에스원	낡은 건축물을 이용한 설치작품/ 교실 이용한 site-specific 설치작품/ 실험적인 기획전시	대안공간 프로그램/ 외부 마당의 실험건축가 설치프로그램/ 젊은 대중을 위한 이벤트 공간/ 영화연극 공연/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MOMA 연계 프로그램
(독)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	1960 이후 아방가르드작가 공간에 맞는 장르별 전시	아방가르드 작가의 지속적인 특별기획전/ 뉴내셔널 갤러리와 연계 작품교류
(중) 유씨씨에이	중국작가의 현대미술 전시/ 중국 신진작가 지원 전시를 공간에 맞게 전시	신용작가의 발굴과 홍보/ 영화공연/ 교육 프로그램/ 다목적 공간 활용/ 공간대여

14)2008 테이트모던 중추계획 전시와 테이트모던 비디오 참조

15)건축이기에 규모가 작고, 설치작품이기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의 규모가 큰 건축과 설치의 실험적인 중간영역의 작업

16)http://ps1.org/yap 실험건축가를 위한 공모전에서 참조

17)Christian Hunziker, 앞의 글, pp.29-30

3.3. 건축물의 재생방법

이상의 사례연구한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관을 재생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용도를 가진 화력발전소, 공립학교, 기차역사, 공장이 모두 한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되어 극적인 용도변경의 충격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외관을 재활용하여 옛 느낌을 간직하였으며, 굴뚝 등 특정 요소의 보존은 미술관의 상징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보존 부분과 보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구조와 공간 또한 재활용하여 미술관 고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하게

<표 4> 재생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재생방법	공통점	차이점
용도 변경의 충격효과	다른 용도를 가진 화력발전소, 공립학교, 기차역사, 공장이 모두 한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다가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되어 극적인 용도변경의 충격효과를 가지게 되었음	
외관의 재활용	모두 외관 재활용/ 옛 느낌 간직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특정 요소는 상징성 부여함 테이트모던은 유리로 증축된 옥탑층으로 인하여 재료대비와 수직수평, 옛것과 새것 대비 강조/피에스원과 유씨씨에이는 낡은 외관 그대로 사용, 피에스원은 낡은 외관으로 전위성 강조/ site-specific 전시에 연속성 부여, 함부르크 미술관은 있는 그대로의 외관에 도장작업을 세로이함, 테이트모던과 유씨씨에이에서는 굴뚝을 상징으로 활용
구조와 공간의 재활용	모두 구조와 공간을 재활용/ 고유의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	부분과 정도의 차이가 있음 테이트모던은 외벽, 내부의 철골트러스, 기둥, 벽 보존/ 터빈홀의 공간과 느낌 보존으로 거대함 강조 피에스원은 교실구조 유지/ 건축과 일체된 설치작품 함부르크 미술관은 철골트러스와 기둥구조 재활용/ 트러스 이용한 거친 분위기로 플랫폼 분위기 유지하며 명확한 구조와 공간 강조/ 반지하벽 재활용 유씨씨에이는 두 개의 천장 구조프레임 유지하며 구조에 따른 공간 분할/ 굴뚝하부구조와 입구벽 보존하였으나 모두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백색 도장하여 내부는 현대적 느낌
낡음의 물질성 표현	모두 낡음의 물질성 부분적이라도 표현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매우 큼 피에스원이 낡음의 물질성 가장 많이 표현하며 site-specific설치로 낡음의 물질성 도리어 강조하여 미술관의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 테이트모던은 외벽과 신규 대비로 낡음의 물질성 강조 함부르크 미술관과 유씨씨에이는 구조와 외부를 제외하면 내부는 현대적 느낌/ 낡은 일부요소의 오브제적 처리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모두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반영 정도와 반영 부분 차이 테이트모던은 터빈홀의 느낌 살려 도전적 설치전시하며 거대함을 재확인/ 네 개의 유형별 전시 피에스원은 낡은 건축물과 교실 이용한 site-specific 설치와 실험적인 전시로 미술관의 독특함과 정체성 확보 함부르크 미술관은 아방가르드작가 작품을 역사화 등 건축 공간에 맞게 전시 유씨씨에이는 중국작가의 현대미술 전시/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	모두 관람객과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 활용	미술관의 추구방향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프로그램 차이 테이트모던은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과 문화행사를 위주한 한 이벤트에 중점을 둠 피에스원은 대인공간 프로그램, 외부 마당의 실험건축가 설치 프로그램, 젊은 대중을 위한 이벤트 공간, 영화연극 공연,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MOMA 연계 프로그램 등 가장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운영 함부르크 미술관은 대중보다는 아방가르드 작품을 찾는 관람객 위주의 지속적인 특별기획전을 위하여 뉴내셔널 갤러리와 연계하여 작품교류 유씨씨에이는 신홍작가의 발굴과 홍보, 영화공연, 교육 프로그램과 다목적공간 활용, 공간대여 등으로 대중의 요구에 부응

되었으며, 낡음의 물질성의 표현은 미술관에 따라 표현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매우 심하였으나 네 지역의 미술관에 부분별로 표현되었다. 피에스원이 네 지역의 미술관 중 낡음의 물질성을 가장 많이 표현한 현대미술관으로서 이를 통하여 실험적인 미술관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 또한 반영 정도와 반영 부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거 건물을 재활용하여 독특한 전시기획을 하여 전시를 돋보이게 하였다. 미술관이 추구하는 방향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차이는 있지만 관람객과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네 지역의 미술관 모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폐건물의 재생과 재활용을 미술관의 운영전략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폐건물을 재생하여 현대미술관으로 재활용한 네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폐건물을 재생하여 현대미술관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과거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현대미술관이 미술전시 뿐 아니라 현대미술의 사고의 방법까지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현대미술관 건립에 있어 의미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권위적이지 않은 공간이 현대미술의 성향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사고와 폐건물을 재생함에 있어 건축물 외관의 재활용은 그 정도와 방법에 따라 현대미술관이 추구하는 방향, 상징성과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와 공간의 재활용 또한 과거 건축물의 용도를 알리고, 과거 공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친근함을 준다. 또한 중첩된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현대미술이 의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미술관의 정체성도 확립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폐건물을 재생함에 있어 기존 건물 재료로 인한 물질성의 인식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재생과 재활용 방법에 따라 낡음의 물질성은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작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낡음도 관점에 따라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다는 현대미술의 사고의 한 방법도 현대미술관 건축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낡은 건물의 물질성 표현 정도와 방법에 따라 재생된 미술관들은 느낌을 달리하며, 미술관의 특성을 암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현대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라는 하드웨어 요소와 함께 그에 어울리는 전시방법과 프로그램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폐건물을 재생하여 현대미술관으로 사용함에 있어, 과거 건물의 독특함을 활용하는 전시를 함으로써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전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시에 따라 미술관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운영 프로그램 또한 지역적 특성과 관람객 층을 반영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대중의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수용하는, 즉, 대중에 반응하는(interactive) 현대미술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성공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폐건물의 재생에 의한 현대미술관은 용도변경의 충격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외관을 재활용하고, 구조와 공간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낡음의 물질성을 표현함으로써 미술관의 특성을 암시할 수 있으며, 건축물을 반영하는 전시를 함으로써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대중에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써 미술관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국내의 도시에도 폐건물을 재생한 현대미술관이 건립되어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호철, 세계의 도시환경과 문화·조경, 시공문화사, 서울, 2008
2. 박용남, 꿈의 도시 꾸러찌마, 녹색평론사, 2007
3. 서상우, 새로운 뮤지엄 건축, CA현대건축사, 서울, 2002
4. 이정형, 도시재생과 경관만들기, 도서출판 발인, 서울, 2007
5. Lampugnani, Vittorio and Sachs, Angeli, 양효실·최도빈 옮김, 세계의 미술관, 한길사, 광주, 2006
6. Allinson, Ken, London's Contemporary Architecture, Architectural Press, 2003
7. Burton, Jane, Tate Modern Guide, Tate Publishing & Tate Enterprises Ltd. London, 2007
8. Herzog and De Meuron, Herzog & De Meuron, Birkhauser, Switzerland, 2005
9. Huang, Rui, Beijing 798, Sichuan Publing Group, Beijing, 2008
10. Hunziker, Christian, Berlin, Publicion, 2004
11. Mathieu, Caroline, Musee d'Orsay, Scala, Paris
12. 나도삼·백승만,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06
13. 박준형, 역사 문화가 살아나면 도시는 화려하게 부활한다, Noble Asset 2008년도 6월호, 저스트알, 2008
14. 하용석, PSI Museum 국제스튜디오 프로그램, 문화예술, 1995년 9월호
15. 중앙일보 2008년 12월 9일자·10일자

<접수 : 2009. 3. 23>